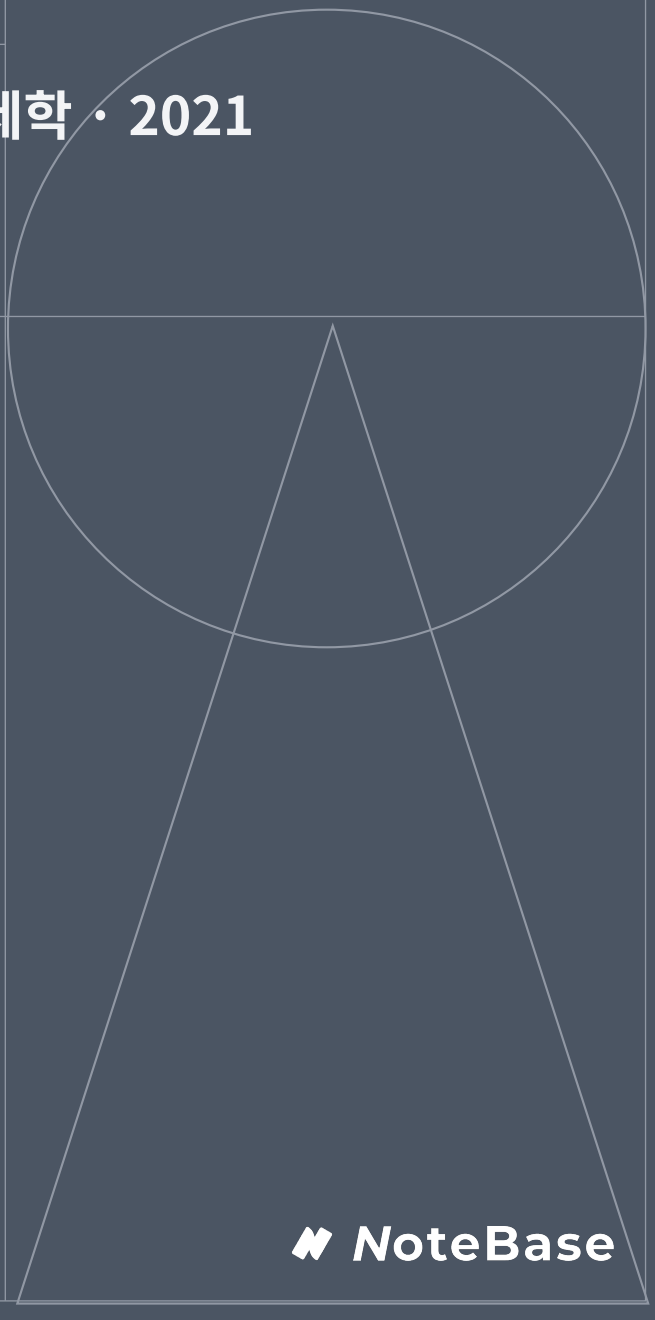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1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1

공무원/소방/간부후보 · 경제학 · 2021

문 1. 경제학자들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계의 생계비를 과대평가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로 타당한 것은?

① 소비자 물가지수는 모든 재화가 아닌 특정한 상품들만의 가격변화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②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이 심할 때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③ 사람들은 소득이 변하면 다른 재화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④ 사람들은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구매량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⑤ 사람들은 앞으로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가계의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원인 중 대체편의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소비자물가지수는 대표적인 소비품목으로 구성한 시장바구니의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지수이다. 대체편의란 어떤 재화의 상대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그 재화의 구매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싼 재화로 옮겨 가는데, 고정된 시장바구니를 사용하는 지수가 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이다. 실제 생계비는 대체를 통해 낮아질 수 있으므로 CPI는 생계비 상승을 과대평가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모든 재화가 아닌 특정한 상품들만의 가격 변화를 반영'이다. CPI가 대표 품목을 표본으로 삼는다는 사실만으로 생계비를 반드시 과대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과대평가의 직접 원인은 가격 변화 뒤 소비자가 품목을 대체하는 행동을 고정 시장바구니가 반영하지 못하는 데 있다.

② X
틀린 표현은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적절한 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 변동의 크기 자체는 CPI가 생계비를 과대평가하는 이유가 아니다. 가격이 변한 뒤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싼 재화로 대체하는지를 보아야 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소득이 변하면 다른 재화를 구매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소득 변화가 아니라 상대가격 변화이다. 올바르게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구매를 대체하기 때문에 고정 시장바구니 방식의 CPI가 생계비를 과대평가할 수 있다.

④ O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소비자는 비싸진 재화의 구매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싼 재화의 구매량을 늘릴 수 있다. CPI가 이러한 구매량 조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큰 생계비 상승을 계산하므로 과대평가가 발생한다.

⑤ X
틀린 표현은 '앞으로의 가격변동을 예상하고 소비하기 때문'이다. 미래 가격에 대한 예상에 따른 시점 간 소비 조정은 이 문항의 과대평가 원인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현재의 상대가격 변화에 따라 재화 사이에서 소비를 대체하는 행동이 원인이다.

오답 포인트

③과 ⑤처럼 소비 변화의 원인을 소득 변화나 미래 가격 예상으로 바꾸면 대체편의와 달라진다. 이 문항에서는 '가격이 변하면 구매량도 달라진다'는 현재의 재화 간 대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계비 과대평가의 원인을 묻는 선지에서는 고정 시장바구니와 가격 변화 후의 구매량 조정을 함께 확인한다. 가격 상승 뒤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옮겨 갈 수 있다는 내용이면 대체편의에 해당한다.

암기 포인트

고정 시장바구니는 대체를 놓치고, 대체를 놓치면 생계비 상승을 크게 잡는다.

NoteBase

문 2. 경기가 침체될 때 유효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케인즈(Keynes)의 주장에 의하면 다음 중 정부지출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①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할 때

②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약할 때

③ 기업의 생산성향이 강할 때

④ 기업의 생산성향이 약할 때

⑤ 사람들의 소비성향은 약하고, 기업의 생산성향은 강할 때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케인즈 모형에서 정부지출승수의 크기가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계소비성향은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그중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이다. 정부지출승수는 정부지출 증가가 총소득을 몇 배만큼 늘리는지를 나타내며,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추가 소비와 소득의 연쇄가 더 크게 이어진다. 따라서 소비성향이 강할수록 정부지출승수는 커진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하면 정부지출로 늘어난 소득 중 소비로 다시 지출되는 부분이 커진다. 그만큼 연쇄적인 소득 증가가 커져 정부지출승수가 커진다.
② X. 틀린 표현은 '약할 때'이다. 소비성향이 약하면 추가 소득 중 소비로 이어지는 비율이 작아 정부지출승수는 작아진다. 올바르게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할 때'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기업의 생산성향이 강할 때'이다. 이 문항의 정부지출승수 크기를 직접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한계소비성향이다. 올바르게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할 때'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기업의 생산성향이 약할 때'이다. 생산성향의 강약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정부지출승수의 크기를 결정한다. 올바르게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할 때'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사람들의 소비성향은 약하고, 기업의 생산성향은 강할 때'이다. 소비성향이 약하면 지출의 연쇄가 빨리 줄어 정부지출승수는 커지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람들의 소비성향이 강할 때'이다.

오답 포인트

③~⑤는 정부지출승수의 결정요인을 기업의 생산성향으로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케인즈의 단순 승수 논리에서는 추가 소득이 다시 소비로 지출되는 비율, 즉 한계소비성향이 핵심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지출 증가 뒤 추가 소득이 얼마나 다시 소비로 이어지는지를 본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으면 소비의 연쇄가 오래 지속되어 승수가 커지고, 낮으면 승수가 작아진다.

암기 포인트

소비성향이 클수록 소비의 연쇄가 커지고, 정부지출승수도 커진다.

문 3. 재정수지가 적자인 정부가 민간시장에서 차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 민간 대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ㄴ.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총공급을 증가시킨다.
ㄷ.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을 높인다.
ㄹ. 재정수지 적자는 대부자금 시장의 이자율을 낮춘다.
ㅁ. 재정수지 적자는 민간의 대부자금 수요를 구축한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ㄴ, ㅁ
⑤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 차입이 대부자금시장의 수요·공급과 이자율, 그리고 민간 차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핵심 개념

재정적자는 정부지출이 조세수입보다 큰 상태이며, 정부가 이를 민간 대부자금시장에서 차입으로 메우면 정부라는 새로운 차입자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부자금의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총공급은 변하지 않은 채 균형이자율은 상승한다. 이자율 상승은 민간의 차입 수요를 줄여 민간투자를 구축한다.

보기 판단

ㄱ. O: 정부의 차입이 더해지므로 대부자금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한다.
ㄴ. X: 틀린 표현은 '총공급을 증가시킨다'이다. 정부는 자금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라 차입자이므로,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ㄷ. O: 총수요 증가로 균형이자율이 상승한다.
ㄹ. X: 틀린 표현은 '이자율을 낮춘다'이다.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 차입은 대부자금 총수요를 늘리므로 이자율을 높인다.
ㅁ. O: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의 차입 수요와 투자 일부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은 설명이고 ㄹ만 옳지 않은 설명이다. 틀린 조합 'ㄱ, ㄹ' → 옳지 않은 설명만 고르면 'ㄴ, ㄹ'이다.
② X: ㄴ은 옳지 않지만 ㄷ은 옳은 설명이다. 틀린 조합의 'ㄷ' →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ㄴ은 정부 차입이 총공급이 아니라 총수요를 늘린다는 점에서 틀리고, ㄹ은 이자율이 하락이 아니라 상승한다는 점에서 틀리다.
④ X: ㄴ은 옳지 않지만 ㅁ은 옳은 설명이다. 틀린 조합의 'ㅁ' → 'ㄹ'로 고쳐야 한다.
⑤ X: ㄹ은 옳지 않지만 ㅁ은 옳은 설명이다. 틀린 조합의 'ㅁ' → 'ㄴ'으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정부가 자금을 빌린다는 사실을 대부자금의 공급 증가로 혼동하기 쉽다. 정부는 대부자금을 시장에 내놓는 공급자가 아니라 빌리는 수요자이므로, ㄴ이 틀리고 이자율 하락을 말한 ㄹ도 틀리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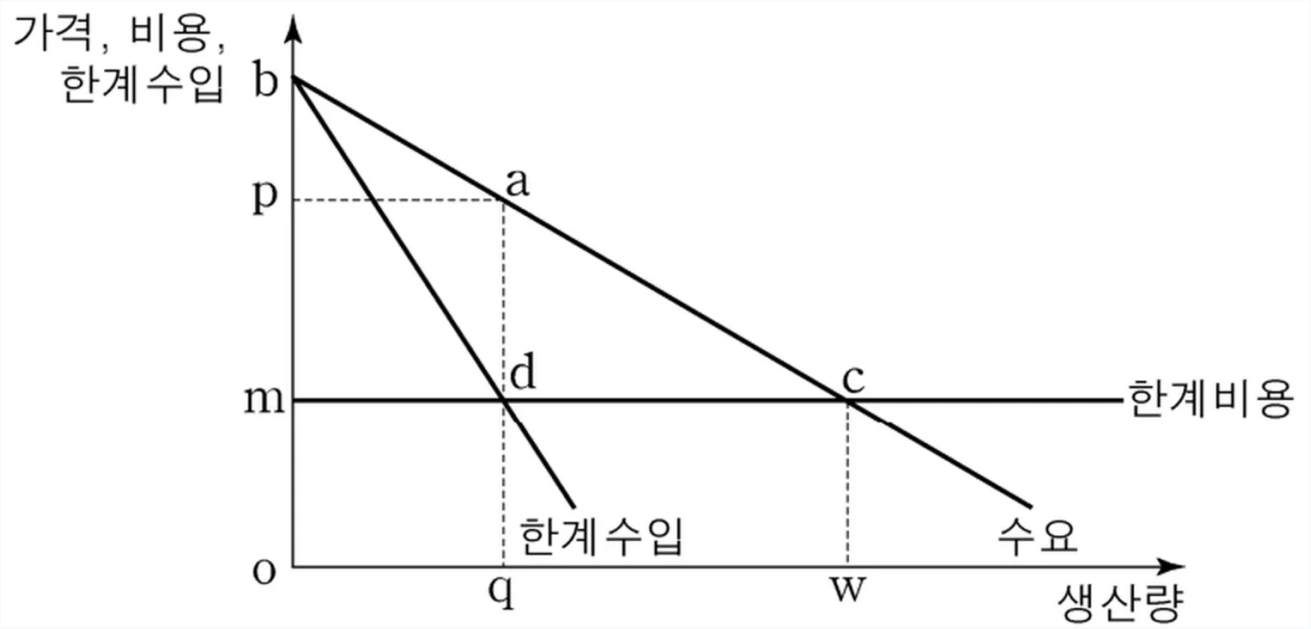
재정적자와 정부 차입이 제시되면 먼저 정부를 대부자금의 수요자로 본다. 이어서 총수요 증가 → 이자율 상승 → 민간 차입·투자 감소의 순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재정적자 정부차입: 대부자금 수요↑, 이자율↑, 민간투자·차입↓이다.

NoteBase

문 4. [그림]은 어떤 산업의 독점기업의 생산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고정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① 독점기업의 이윤은 사각형 padm이다.

②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bap이다.

③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는 점 d에서 이루어진다.

④ 만약 이 산업이 완전경쟁이면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acd이다.

⑤ 만약 이 산업이 완전경쟁이면 생산자 잉여는 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조건과 완전경쟁일 때의 소비자 잉여·생산자 잉여를 그래프에서 읽는 문제이다. 독점에서는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d점에서 생산량 q를 정하고, 수요곡선에서 가격 p를 정한다.

자료 읽는 순서

1. 독점의 생산량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d점의 수량 q로 확인한다.
2. q에서 수요곡선까지 올려 가격 p를 확인한다.
3. 완전경쟁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c점에서 생산량 w와 가격 m을 확인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한계비용은 m인 수평선이다. 독점의 생산량 q에서는 가격이 p이고 단위당 이윤은 p-m이므로 이윤은 사각형 padm이다. 완전경쟁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과 같은 m이어서 생산자 잉여가 0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근거 위치: 독점 생산량 q의 수요곡선상 a점과 한계비용선 d점이다. 가격은 p, 한계비용은 m, 생산량은 q이므로 고정비용이 없을 때 이윤은 (p-m)×q인 사각형 padm이다.
② O. 근거 위치: 수요곡선의 가격절편 b, 독점가격 p, 독점생산량 q이다.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가격선 p 위의 영역이므로 삼각형 bap이다.
③ O. 근거 위치: 한계수입곡선과 한계비용선의 교점 d이다. 독점기업은 한계수입=한계비용인 d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④ X. 근거 위치: 완전경쟁 균형점 c와 가격·한계비용선 m이다. 완전경쟁의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 아래, 가격 m 위, 생산량 w까지의 삼각형 bcm이다. 틀린 표현 '삼각형 acd' → 올바르게는 '삼각형 bcm'이다.
⑤ O. 근거 위치: 완전경쟁 균형점 c에서 가격 m과 한계비용 m이 일치한다. 생산자 잉여는 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에 생산량을 곱한 값인데 그 차이가 0이므로 생산자 잉여는 없다.

오답 포인트

④는 독점 생산량 q와 관련된 a·d점을 완전경쟁의 소비자 잉여 영역에 섞은 것이 함정이다. 완전경쟁에서는 c점까지 생산하므로 소비자 잉여의 밑변도 q가 아니라 w까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은 먼저 한계수입=한계비용으로 생산량을 정한 뒤 수요곡선에서 가격을 찾는다. 완전경쟁은 가격=한계비용의 교점으로 균형을 찾고,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선 사이, 생산자 잉여는 가격선과 공급곡선 또는 한계비용선 사이의 영역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은 MR=MC 후 수요곡선으로 가격을 찾고, 완전경쟁은 P=MC이다.

NoteBase

문 5. [표]에서 각각의 괄호는 A항공과 B항공 두 회사의 전략에 따른 A항공의 이윤과 B항공의 이윤을 차례대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A항공이 높은 가격전략을 사용하고 B항공이 높은 가격전략을 사용하면 A항공의 이윤은 8억, B항공의 이윤은 5억이 된다. 이 게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B항공	
		높은 가격	낮은 가격
A항공	높은 가격	(8억, 5억)	(5억, 10억)
	낮은 가격	(7억, 5억)	(3억, 3억)

①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두 회사가 모두 높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② 이 게임의 내쉬균형은 두 회사가 모두 낮은 가격을 선택하는 것이다.

③ 이 게임은 죄수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④ A항공의 우월전략은 없다.

⑤ B항공의 우월전략은 없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보수행렬에서 각 항공사의 최적반응, 내쉬균형, 우월전략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월전략은 상대방이 어느 전략을 선택하든 자신에게 더 높은 보수를 주는 전략이다. 내쉬균형은 어느 한쪽도 상대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 혼자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전략 조합이다.
A항공은 B항공이 높은 가격을 택할 때 8억원이 7억원보다 크고, 낮은 가격을 택할 때도 5억원이 3억원보다 크므로 높은 가격이 우월전략이다. B항공은 A항공이 높은 가격을 택하면 낮은 가격의 보수 10억원이 높지만, A항공이 낮은 가격을 택하면 높은 가격의 보수 5억원이 더 높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두 회사가 모두 높은 가격을 택한 조합에서는 B항공이 낮은 가격으로 바꾸면 이윤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높은 가격, 높은 가격)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두 회사가 모두 높은 가격"이며, 내쉬균형은 A항공이 높은 가격, B항공이 낮은 가격을 택하는 조합이다.
② X. 두 회사가 모두 낮은 가격을 택한 조합에서는 A항공이 높은 가격으로 바꾸면 이윤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하고, B항공도 높은 가격으로 바꾸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낮은 가격, 낮은 가격)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두 회사가 모두 낮은 가격"이며, 내쉬균형은 (A 높은 가격, B 낮은 가격)이다.
③ X.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각 경기자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하고 그 우월전략의 조합이 파레토열등한 균형을 이룬다. 이 게임에서는 B항공의 최적전략이 A항공의 선택에 따라 달라져 B항공에게 우월전략이 없다. 틀린 표현은 "죄수의 딜레마"이며, 이 게임은 한쪽만 우월전략을 가지는 게임이다.
④ X. A항공은 B항공이 어느 가격을 택하든 높은 가격을 선택할 때 더 큰 이윤을 얻는다. B항공이 높은 가격이면 8억원이 7억원보다 크고, B항공이 낮은 가격이면 5억원이 3억원보다 크다. 틀린 표현은 "우월전략은 없다"이며, A항공의 우월전략은 높은 가격이다.
⑤ O. B항공은 A항공이 높은 가격을 선택하면 낮은 가격에서 10억원을 얻지만, A항공이 낮은 가격을 선택하면 높은 가격에서 5억원을 얻는다. 상대방의 선택과 무관하게 항상 더 좋은 한 전략이 없으므로 B항공의 우월전략은 없다.

오답 포인트

①과 ②는 한 회사라도 전략을 바꾸어 이윤을 늘릴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오답이다. 특히 A항공의 우월전략이 있다는 사실만 보고 B항공도 높은 가격을 선택한다고 판단하면 ①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회사별로 상대방의 전략을 고정한 뒤 자신의 두 보수를 비교한다. 모든 경우에서 같은 전략이 더 크면 우월전략이고, 각 조합에서 두 회사 모두 더 유리한 일탈이 없으면 내쉬균형이다.

암기 포인트

우월전략은 상대와 무관한 최선, 내쉬균형은 상대 전략에 대한 최선의 만남이다.

NoteBase

문 6.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한 경제를 가정할 때 이 경제의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볼록한 일반적인 형태를 갖는다면, 그 원인으로 옳은 것은?

① 이 경제가 효율적인 생산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② 자원의 일부가 특정 재화에 대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③ 이 경제가 가지고 있는 특정 재화에 대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④ 특정 재화에 대한 이 경제의 선호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⑤ 특정 재화를 생산하는 기회비용은 그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 즉 통상 그래프에서 원점에 대해 오목하게 휘는 이유를 묻는다. 핵심은 자원의 특화와 그에 따른 기회비용 체증이다.

핵심 개념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자원과 기술 아래에서 생산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최대 조합을 나타낸다. 자원이 모든 재화 생산에 똑같이 적합하지 않고 일부 자원이 특정 재화 생산에 더 적합하면, 한 재화를 더 생산할수록 다른 재화의 희생량인 기회비용이 커진다. 이 기회비용 체증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한 형태를 가진다.
효율적 생산은 생산가능곡선 위의 점에 있다는 뜻이고, 기술 발전은 곡선 자체를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며, 소비자 선호는 생산가능곡선의 모양을 결정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효율적인 생산상태라는 사실은 경제가 생산가능곡선 위에 있음을 뜻할 뿐, 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이유는 아니다. 틀린 표현은 '효율적인 생산상태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며, 올바르게는 자원의 특화로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나타난다.
② O. 일부 자원이 특정 재화 생산에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면, 그 재화를 계속 늘릴 때 점차 덜 적합한 자원까지 전용하게 된다. 따라서 다른 재화의 포기량이 커져 기회비용이 체증하고 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해진다.
③ X. 특정 재화에 대한 기술 발전은 그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하여 생산가능곡선을 바깥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틀린 표현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며, 올바르게는 자원의 생산성 차이와 기회비용 체증이 곡선의 굽은 형태를 설명한다.
④ X. 특정 재화에 대한 선호 변화는 어떤 생산조합을 선택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주어진 자원과 기술로 가능한 최대 생산조합을 나타내는 생산가능곡선 자체의 모양을 바꾸지는 않는다. 틀린 표현은 '선호가 변화했기 때문'이며, 올바르게는 자원 배분의 생산성 차이가 원인이다.
⑤ X. 한 재화를 더 많이 생산할수록 그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감소하기 때문'이며, 올바르게는 기회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효율성, ③의 기술 발전, ④의 선호 변화는 모두 경제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곡선의 굽은 모양을 설명하는 직접 원인이 아니다. 특히 ⑤는 '기회비용 감소'와 '기회비용 체증'을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생산가능곡선의 모양을 물으면 먼저 자원과 기술을 본다. 자원이 재화별로 특화되어 있으면 기회비용 체증, 원점에 대해 볼록한 곡선으로 판단한다. 기술 변화는 곡선의 이동, 선호 변화는 곡선 위 생산점의 선택 문제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자원 특화 → 기회비용 체증 → 생산가능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이다.

NoteBase

문 7. 국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5로 알려져 있다. 이때 현재 담배 1갑이 5,000원이고 정부가 국민들의 담배 소비를 20% 줄이도록 유도하려 한다면, 담배 1갑의 가격을 얼마로 인상해야 하는가?

① 6,000원

② 7,000원

③ 8,000원

④ 9,000원

⑤ 10,000원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으로 소비량을 20% 줄이기 위해 필요한 가격 인상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0.25이고, 현재 가격은 5,000원이다.
구해야 할 값: 소비량을 20% 감소시키는 새 가격이다.
주의할 조건: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보통 음수이나, 문제에서 제시한 0.25는 절댓값으로 사용한다.

사용할 공식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은 $|E_d| = \left|\frac{\%\Delta Q_d}{\%\Delta P}\right|$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 가격 변화율에 따른 수요량 변화율을 나타내는 값이 가격탄력성이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소비량을 20% 줄이려면 $|E_d| = 0.25$이므로 필요한 가격 상승률은 $20\% \div 0.25 = 80\%$이다.
따라서 새 가격은 $5{,}000\text{원} \times (1 + 0.80) = 9{,}000\text{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6,000원은 기존 가격보다 20% 상승한 가격이므로 소비량은 0.25 × 20% = 5% 감소한다. 틀린 표현인 ‘6,000원’ → 올바르게는 ‘9,000원’이다.
② X: 7,000원은 40% 상승한 가격이므로 소비량은 0.25 × 40% = 10% 감소한다. 틀린 표현인 ‘7,000원’ → 올바르게는 ‘9,000원’이다.
③ X: 8,000원은 60% 상승한 가격이므로 소비량은 0.25 × 60% = 15% 감소한다. 틀린 표현인 ‘8,000원’ → 올바르게는 ‘9,000원’이다.
④ O: 9,000원은 80% 상승한 가격이고, 소비량은 0.25 × 80% = 20% 감소한다.
⑤ X: 10,000원은 100% 상승한 가격이므로 소비량은 0.25 × 100% = 25% 감소한다. 틀린 표현인 ‘10,000원’ → 올바르게는 ‘9,000원’이다.
계산 결과 소비량을 20% 줄이는 가격은 9,000원이므로 정답은 4번이다.

오답 포인트

0.25를 가격 상승률에 곱해 20%를 만들려면 가격 상승률을 구할 때 0.25로 나누어야 한다. 20%를 그대로 가격 인상률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표 수요량 변화율의 절댓값을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가격 변화율을 구한 뒤, 기존 가격에 그 변화율을 반영한다.

암기 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 = 수요량 변화율 ÷ 가격 변화율이므로, 필요한 가격 변화율 = 목표 수요량 변화율 ÷ 탄력성이다.

NoteBase

문 8. A기업의 장기 총비용(TC)이 아래와 같을 때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구분하는 생산규모(Q)는?

$TC(Q) = 500Q - 48Q^2 + 2Q^3$

① 8
② 10
③ 12
④ 14
⑤ 16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와 증가하는 규모의 불경제의 경계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경계는 장기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생산량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장기총비용은 $TC(Q) = 500Q - 48Q^2 + 2Q^3$이다.
구해야 할 값은 규모의 경제에서 규모의 불경제로 바뀌는 생산규모 Q이다.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장기평균비용을 구한 뒤, 그 기울기가 0인 지점을 찾는다.

사용할 공식

장기평균비용은 $LAC(Q) = \frac{TC(Q)}{Q}$이다.
이 문제에서 규모의 경제는 LAC가 감소하는 구간이고, 규모의 불경제는 LAC가 증가하는 구간이다. 따라서 두 구간의 경계인 평균비용의 최저점을 찾기 위해 $\frac{dLAC}{dQ} = 0$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LAC(Q) = \frac{500Q - 48Q^2 + 2Q^3}{Q} = 500 - 48Q + 2Q^2$이다.
2. $\frac{dLAC}{dQ} = -48 + 4Q$이다.
3. $-48 + 4Q = 0$이므로 $Q = 12$이다. 또한 $\frac{d^2LAC}{dQ^2} = 4 > 0$이므로 이 지점은 평균비용의 최저점이다. 따라서 $Q < 12$에서는 규모의 경제, $Q > 12$에서는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Q = 8$에서는 $\frac{dLAC}{dQ} = -16 < 0$이므로 아직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구간이다. 틀린 값 8 → 올바르게는 12이다.
② X: $Q = 10$에서는 $\frac{dLAC}{dQ} = -8 < 0$이므로 경계 이전이다. 틀린 값 10 → 올바르게는 12이다.
③ O: $Q = 12$에서 $\frac{dLAC}{dQ} = 0$이고 평균비용이 최저가 된다. 규모의 경제와 규모의 불경제를 구분하는 생산규모이다.
④ X: $Q = 14$에서는 $\frac{dLAC}{dQ} = 8 > 0$이므로 이미 규모의 불경제 구간이다. 틀린 값 14 → 올바르게는 12이다.
⑤ X: $Q = 16$에서는 $\frac{dLAC}{dQ} = 16 > 0$이므로 경계 이후이다. 틀린 값 16 → 올바르게는 12이다.

오답 포인트

총비용 TC 자체를 미분해 한계비용의 최저점이나 특정 생산량을 찾는 것이 함정이다. 이 문항은 규모의 경제·불경제를 묻으므로 총비용을 Q로 나눈 장기평균비용 LAC의 최저점을 찾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규모의 경제와 불경제의 경계는 장기평균비용의 최저점이다. 먼저 $LAC = TC/Q$를 만들고, $dLAC/dQ = 0$을 풀어 경계 생산량을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규모의 경제: LAC 하락, 경계: LAC 최저, 규모의 불경제: LAC 상승이다.

NoteBase

문 9. 독점적 경쟁시장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이 가능하다.

② 장기적으로 독점적 경쟁기업의 독점력은 유지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윤은 영(0)이다.

③ 독점적 경쟁시장의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은 제품의 다양성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④ 독점적 경쟁시장의 제품들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매우 낮다.

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독점적 경쟁시장의 장기균형과 제품 차별화가 수요의 교차탄력성 및 가격·한계비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독점적 경쟁시장은 다수의 기업이 차별화된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운 시장이다.
제품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유사품이므로 각 기업은 하향하는 수요곡선에 직면한다.
장기에는 진입·퇴출로 경제적 이윤은 0이 되지만, 제품 차별화에 따른 독점력 때문에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선지별 해설

① O. 독점적 경쟁시장에는 진입장벽이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산업에는 신규 기업이 진입하고, 손실이 발생하는 산업에서는 기업이 퇴출할 수 있다.

② O. 제품 차별화 때문에 개별 기업의 독점력은 남아 있을 수 있다. 다만 장기에는 진입과 퇴출이 경제적 이윤을 0으로 수렴시킨다.

③ O.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고 과잉설비가 생겨 자원배분상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으나,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는 편익이 이를 상쇄할 수 있다.

④ X. 틀린 표현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매우 낮다'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제품은 차별화되어 있지만 서로 대체 가능한 유사품이므로 한 기업의 가격 변화가 다른 기업 제품의 수요에 비교적 크게 영향을 준다. 올바르게는 교차탄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본다.

⑤ O.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에 대해 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지므로 이윤극대화점에서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다. 장기 경제적 이윤이 0이라는 사실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다는 뜻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경제적 이윤 0’과 ⑤의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를 모순으로 오해하기 쉽다. 장기 이윤 0은 평균비용까지 고려한 결과이고,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시장지배력의 결과이다. 또한 ④는 ‘제품 차별화’만 보고 대체관계가 약하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먼저 ‘다수 기업·제품 차별화·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확인한다. 그다음 장기에는 경제적 이윤이 0, 개별 기업 수준에서는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큼, 유사한 차별화 제품 사이의 교차탄력성은 비교적 큼을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독점적 경쟁: 장기 이윤은 0, 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음, 유사품 사이 교차탄력성은 비교적 큼이다.

NoteBase

문 10. 케인즈(Keynes)의 균형국민소득 결정 모형에서 한계소비성향이 0.75이고, 정부지출과 조세가 모두 1,000억 원씩 증가했다면, 균형국민소득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① 0원

② 500억 원

③ 1,000억 원

④ 1,500억 원

⑤ 2,500억 원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부지출과 조세가 같은 금액만큼 함께 늘어날 때의 균형재정 승수로 균형국민소득 증가분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한계소비성향은 $c = 0.75$이다. 정부지출 증가분은 Δ G=1,000억원, 조세 증가분은 Δ T=1,000억원이다.
정부지출 증가는 총지출을 직접 늘리고, 조세 증가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줄인다.

사용할 공식과 계산 과정

정부지출승수는 $1/(1-c)$, 조세승수는 $-c/(1-c)$이다. 따라서 정부지출과 조세가 함께 변하면 $\Delta Y = \frac{1}{1-c}\Delta G - \frac{c}{1-c}\Delta T$이다. 이는 정부지출은 전액이 최초 지출로 들어가지만, 조세 증가는 그중 한계소비성향만큼의 소비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Δ Y=(1)/(1-0.75)×1,000-(0.75)/(1-0.75)×1,000=4,000-3,000=1,000억원

즉 균형재정 승수는 1이므로, 정부지출과 조세를 같은 금액만큼 늘리면 균형국민소득도 그 금액만큼 증가한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균형국민소득은 0원이 아니라 1,000억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 '0원' → 올바르게는 '1,000억원'이다. 조세 증가의 소비 감소효과가 정부지출 증가효과를 전부 상쇄하지는 않는다.
② X: 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 '500억원' → 올바르게는 '1,000억원'이다. 균형재정 승수는 0.5가 아니라 1이다.
③ O: 계산 결과 균형국민소득은 1,000억원 증가한다. 정부지출승수 효과 4,000억원에서 조세승수 효과 3,000억원을 빼면 1,000억원이 남는다.
④ X: 1,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 '1,500억원' → 올바르게는 '1,000억원'이다. 한계소비성향 0.75에서 균형재정 승수는 1이다.
⑤ X: 2,500억원이 아니라 1,000억원 증가한다. 틀린 표현 '2,500억원' → 올바르게는 '1,000억원'이다. 정부지출승수만을 적용하거나 조세 증가에 따른 소비 감소효과를 잘못 반영한 값이다.

오답 포인트

정부지출과 조세가 모두 증가한 경우 정부지출승수 4만 적용해 4,000억원으로 계산하거나, 두 변화가 같으므로 효과가 0이라고 보는 함정이 있다. 조세 1,000억원 증가는 소비를 1,000억원 전부가 아니라 한계소비성향 0.75만큼 줄이므로 두 승수의 합은 1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를 따로 승수로 계산한 뒤 합산한다. 두 변화가 같은 금액이면 $\Delta Y = (1/(1-c) - c/(1-c))\Delta G = \Delta G$가 되어 균형재정 승수는 1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균형재정: $\Delta G = \Delta T$이면 $\Delta Y = \Delta G$, 즉 균형재정 승수는 1이다.

NoteBase

문 11. A국은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이며, 현재 무역수지가 균형상태에 있다. 다수의 주요 외국 정부가 자국의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현상으로 옳은 것은?

① A국의 무역적자 발생

② A국의 균형실질환율 하락

③ 해외에 투자될 A국 통화의 공급 감소

④ A국의 국내투자 증가

⑤ 세계이자율의 하락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완전한 자본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해외의 재정지출 확대가 세계이자율, 자본유출, 실질환율 및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다.

핵심 개념

소규모 개방경제는 세계이자율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해외 주요국의 정부지출 증가는 세계저축을 줄여 세계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세계이자율 상승은 A국의 국내투자를 줄이고 순자본유출을 늘린다. 순자본유출이 늘면 외환시장에서 A국 통화의 공급이 증가하여 A국 통화가 실질적으로 절하되며, 균형실질환율은 하락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A국 통화의 실질절하로 A국 재화의 상대가격이 낮아져 순수출이 증가한다. 따라서 무역적자가 발생한다는 표현은 틀렸고, 무역수지가 균형이었다면 무역흑자로 전환된다.

② O. 해외 주요국의 재정지출 확대는 세계이자율을 올리고, A국에서는 순자본유출 증가로 A국 통화가 실질절하된다. 따라서 균형실질환율은 하락한다.

③ X. 세계이자율 상승으로 A국의 순자본유출이 증가하므로 해외투자를 위해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A국 통화는 증가한다. 틀린 표현은 '공급 감소'이며, 올바르게는 'A국 통화의 공급 증가'이다.

④ X. 세계이자율이 상승하면 A국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비용도 높아져 국내투자는 감소한다. 틀린 표현은 '국내투자 증가'이며, 올바르게는 '국내투자 감소'이다.

⑤ X. 주요국의 정부지출 증가는 세계저축을 감소시키므로 세계이자율을 상승시킨다. 틀린 표현은 '세계이자율의 하락'이며, 올바르게는 '세계이자율의 상승'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자본유출과 통화공급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고, ④와 ⑤는 이자율 상승의 효과를 반대로 제시한 선지이다. 해외 재정확대는 세계이자율 하락이 아니라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소규모 개방경제에서는 먼저 세계이자율의 변화를 판단한다. 세계이자율 상승 → 국내투자 감소·순자본유출 증가 → 자국 통화 공급 증가 → 실질환율 하락(실질절하) → 순수출 증가의 순서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해외 재정확대 → 세계이자율 상승 → 자본유출·통화공급 증가 → 실질환율 하락 → 순수출 증가이다.

NoteBase

문 12. 1인당 생산함수가 $y = k^{1/2}$일 때 저축률과 자본의 감가상각률이 각각 0.4와 0.1이라면,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단, k는 1인당 자본량이다.)

① 1

② 2

③ 3

④ 4

⑤ 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솔로우 모형의 안정상태 조건 $sf(k) = \delta k$를 이용하여 1인당 생산량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생산함수는 $y = k^{1/2}$이고, 저축률은 $s = 0.4$, 자본감가상각률은 $\delta = 0.1$이다. 인구와 기술의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안정상태에서는 저축 $sf(k)$과 감가상각 δk이 같아진다.

사용할 공식

안정상태 조건은 $sf(k) = \delta k$이다. 1인당 자본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안정상태에서는 저축으로 늘어나는 자본량과 감가상각으로 줄어드는 자본량이 일치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생산함수 $y = k^{1/2}$을 안정상태 조건에 대입하면 $0.4k^{1/2} = 0.1k$가 된다.
2. $k > 0$이므로 양변을 $0.1k^{1/2}$로 나누면 $4 = k^{1/2}$를 얻는다.
3. 따라서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y = k^{1/2} = 4$이다.

선지 판단

① X.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1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안정상태 조건을 적용한 계산값은 $y = 4$이다.
② X.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2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k^{1/2} = 4$이므로 생산량은 2가 아니라 4이다.
③ X.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3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른 생산량은 $y = 4$이다.
④ O. 안정상태에서 $0.4k^{1/2} = 0.1k$이므로 $k^{1/2} = 4$이고, 따라서 1인당 생산량은 4이다.
⑤ X.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은 5이다'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안정상태의 1인당 생산량이 4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률 $\delta = 0.1$을 생산함수에 직접 대입하거나, k와 $k^{1/2}$을 같은 값으로 취급하면 오답이 나온다. 안정상태 조건을 먼저 세운 뒤 구한 $k^{1/2}$가 곧 생산량 y라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솔로우 모형의 안정상태 문제에서는 먼저 $sf(k) = \delta k$를 세운다. 다음으로 생산함수를 대입하여 k 또는 $k^{1/2}$를 구하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요구한 1인당 자본량인지 1인당 생산량인지 구분하여 대입한다.

암기 포인트

안정상태는 '저축 = 감가상각'이며, $y = \sqrt{k}$이면 $\sqrt{k}$를 구한 값이 바로 1인당 생산량이다.

NoteBase

문 13. 최근 외국의 고급자동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변동환율제 하의 먼델-플레밍(Mundell-Fleming) 모형을 이용하여 이러한 변화를 분석했을 때, 순수출과 총소득에 대한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순수출은 감소하고 총소득은 불변이다.

② 순수출은 감소하나 총소득은 증가한다.

③ 순수출은 불변이고 총소득은 감소한다.

④ 순수출과 총소득 모두 감소한다.

⑤ 순수출과 총소득 모두 불변이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변동환율제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수입수요 증가가 순수출과 총소득에 미치는 장기적 균형효과를 묻는다.

핵심 개념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다. 외국 고급자동차 소비 증가는 처음에는 수입을 늘려 순수출을 줄이고 IS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나 변동환율제에서는 이자율 하락에 따른 자본유출과 통화가치 하락이 발생하고, 환율 하락이 수출을 늘리며 수입을 줄여 순수출 감소를 상쇄한다. 따라서 새로운 균형에서 순수출과 총소득은 모두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선지별 해설

① X. 순수출은 최종적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수입 증가의 초기 효과는 순수출 감소이지만, 통화가치 하락이 순수출을 회복시킨다. 틀린 표현 '순수출은 감소' → '순수출은 불변'이다.
② X. 순수출은 감소하지 않고 총소득도 증가하지 않는다. 환율 하락이 IS곡선을 다시 우측으로 이동시켜 총소득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틀린 표현 '순수출은 감소하나 총소득은 증가' → '순수출과 총소득은 모두 불변'이다.
③ X. 순수출은 불변이지만 총소득은 감소하지 않는다. 환율 조정이 수입수요 증가로 인한 IS곡선의 좌측 이동을 상쇄한다. 틀린 표현 '총소득은 감소' → '총소득은 불변'이다.
④ X. 순수출과 총소득이 모두 감소한 상태는 환율 조정 전의 초기 충격만 본 판단이다. 변동환율제의 통화가치 하락이 두 감소를 상쇄한다. 틀린 표현 '모두 감소' → '모두 불변'이다.
⑤ O. 수입수요 증가는 환율 하락을 유발하고, 그 환율 하락이 순수출과 총소득을 모두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입 증가 직후의 순수출 감소와 IS곡선 좌측 이동만 보고 ④를 고르기 쉽다.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이 자동으로 조정되어 순수출 감소와 총소득 감소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수입 증가로 순수출이 감소하는 초기 효과를 확인한다. 이어 변동환율제인지 고정환율제인지를 구분한다. 변동환율제의 먼델-플레밍 모형에서는 환율 하락이 순수출을 회복시키므로 총소득도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암기 포인트

변동환율제에서 수입수요 증가는 환율 하락으로 상쇄되어 순수출·총소득이 불변이다.

NoteBase

문 14. 고용 통계가 다음과 같을 때,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취업자 500만 명
- 실업자 5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450만 명

① 실업률은 10%이다.

② 고용률은 50%이다.

③ 경제활동참가율은 55%이다.

④ 1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이다.

⑤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450만 명에 포함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로 경제활동인구와 15세 이상 인구를 구한 뒤,
실업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취업자는 500만 명, 실업자는 5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450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이므로 550만 명이다.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합계이므로 1,000만 명이다.

사용할 공식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100이다.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이다.
실업률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아니라 경제활동인구이므로, 세 지표는 분모가 서로 다르다.

계산 과정

1. 경제활동인구는 500만 명 + 50만 명 = 550만 명이다.
2. 15세 이상 인구는 550만 명 + 450만 명 = 1,000만 명이다.
3. 실업률은 50/550×100 = 9.09…%이므로 약 9.1%이다.
4. 고용률은 500/1, 000×100 = 50%이고, 경제활동참가율은 550/1, 000×100 = 5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실업률은 약 9.1%이다. '실업률은 10%이다'가 틀린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실업률은 약 9.1%이다'이다. 10%는 실업자 50만 명을 취업자 500만 명으로 나눈 값에서 나오는 분모 혼동이다.
② O. 고용률은 취업자 500만 명을 1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누므로 50%이다.
③ O.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550만 명을 1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으로 나누므로 55%이다.
④ O.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 550만 명과 비경제활동인구 450만 명의 합계이므로 1,000만 명이다.
⑤ O. 구직단념자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 경제활동인구의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실업률의 분모를 취업자로 잘못 잡게 하는 함정이다. 실업률에서는 실업자도 경제활동인구에 포함하므로 분모가 500만 명이 아니라 550만 명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취업자와 실업자를 더해 경제활동인구를 구하고, 여기에 비경제활동인구를 더해 15세 이상 인구를 구한다. 그다음 실업률의 분모는 경제활동인구,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의 분모는 15세 이상 인구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실업률은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고용률은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이다.

NoteBase

문 15.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수요 증가 정책 (가)을/를 사용하기로 했다. 통화 당국도 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늘리는 (나) 정책을 전개하기로 했다.

① (가): 법인세율 인상, (나): 지급준비율 인하
② (가): 소득세율 인하, (나): 국채 매입
③ (가): 정부지출 증가, (나): 국채 매각
④ (가): 이전지출 확대, (나): 기준금리 인상
⑤ (가): 부가가치세율 인하, (나): 지급준비율 인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재정정책과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확장통화정책의 수단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확장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춰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다. 확장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여 통화량과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다.
긴축재정정책은 정부지출 축소·세율 인상, 긴축통화정책은 국채 매각·기준금리 인상·지급준비율 인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법인세율 인상은 가계·기업의 가처분소득과 소비·투자를 줄이는 긴축재정정책이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확장통화정책이지만, (가)가 틀렸다. 틀린 표현 '법인세율 인상' → 올바르게는 '법인세율 인하'이다.
② O: 소득세율 인하는 가처분소득과 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한다. 국채 매입은 중앙은행이 국채 대금을 공급해 통화량과 시중 유동성을 늘린다.
③ X: 정부지출 증가는 확장재정정책이다. 그러나 국채 매각은 중앙은행이 자금을 흡수하여 통화량을 줄인다. 틀린 표현 '국채 매각' → 올바르게는 '국채 매입'이다.
④ X: 이전지출 확대는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확장재정정책이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과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통화정책이다. 틀린 표현 '기준금리 인상' → 올바르게는 '기준금리 인하'이다.
⑤ X: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소비 부담을 낮춰 총수요를 늘리는 확장재정정책이다. 그러나 지급준비율 인상은 은행의 대출 여력을 줄여 시중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틀린 표현 '지급준비율 인상' → 올바르게는 '지급준비율 인하'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⑤는 (가)에 확장재정정책 수단을 제시해 그럴듯하지만, (나)가 각각 국채 매각·기준금리 인상·지급준비율 인상으로 모두 유동성을 줄이는 긴축통화정책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재정정책은 정부지출과 세율의 방향을 먼저 확인한다. 통화정책은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 증가, 국채를 매각하면 통화량 감소로 판단하고, 금리와 지급준비율은 인하가 완화·인상이 긴축이라는 기준을 적용한다.

암기 포인트

경기부양은 세금↓·정부지출↑·국채 매입·금리↓·지급준비율↓이다.

NoteBase

문 16. 양말의 공급 곡선은 $P=\frac{1}{3}Q$이다. 양말의 수요 곡선이 $P=-Q+80$에서 $P=-Q+120$으로 이동했다. 수요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 잉여의 증가분은?

① 450

② 600

③ 750

④ 1,200

⑤ 1,350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수요곡선 이동 전후의 균형가격·균형거래량을 구한 뒤, 공급곡선 아래와 균형가격선 위의 삼각형 면적인 생산자잉여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공급곡선은 $P=\frac{1}{3}Q$이고, 처음 수요곡선은 $P=-Q+80$, 이동 후 수요곡선은 $P=-Q+120$이다.
처음 균형은 $P=20,\ Q=60$이고, 이동 후 균형은 $P=30,\ Q=90$이다.

사용할 공식

공급곡선이 원점을 지나므로 생산자잉여는 밑변이 균형거래량, 높이가 균형가격인 삼각형의 넓이이다. 즉, $PS=\frac{1}{2}\times P^{*}\times Q^{*}$이다.
균형에서는 수요곡선의 가격과 공급곡선의 가격이 같으므로 두 식을 연립한다.

계산 과정

처음에는 $\frac{1}{3}Q=-Q+80$이므로 $Q=60, P=20$이다. 따라서 처음 생산자잉여는 $\frac{1}{2}\times 20\times 60=600$이다.
수요곡선 이동 후에는 $\frac{1}{3}Q=-Q+120$이므로 $Q=90, P=30$이다. 따라서 이동 후 생산자잉여는 $\frac{1}{2}\times 30\times 90=1,350$이다.
따라서 생산자잉여 증가분은 $1,350-600=750$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증가분은 450이 아니다. 틀린 표현 '450' → 올바르게는 '750'이다. 450은 가격만 20에서 30으로 오른 것으로 단순 계산하여 거래량 증가를 함께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② X: 증가분은 600이 아니다. 틀린 표현 '600' → 올바르게는 '750'이다. 600은 수요곡선 이동 전의 생산자잉여이며 증가분이 아니다.
③ O: 수요곡선 이동 전후 생산자잉여가 각각 600, 1,350이므로 증가분은 750이다.
④ X: 증가분은 1,200이 아니다. 틀린 표현 '1,200' → 올바르게는 '750'이다. 1,200은 균형가격과 거래량을 잘못 조합하거나 삼각형 면적의 $\frac{1}{2}$를 빠뜨려 계산할 때 나올 수 있다.
⑤ X: 증가분은 1,350이 아니다. 틀린 표현 '1,350' → 올바르게는 '750'이다. 1,350은 수요곡선 이동 후의 총생산자잉여이지 증가분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생산자잉여의 증가분을 묻는데 이동 후 생산자잉여 1,350 자체를 고르기 쉽다. 또한 수요 증가로 균형가격뿐 아니라 균형거래량도 60에서 90으로 변하므로, 두 변화를 모두 반영해 삼각형 면적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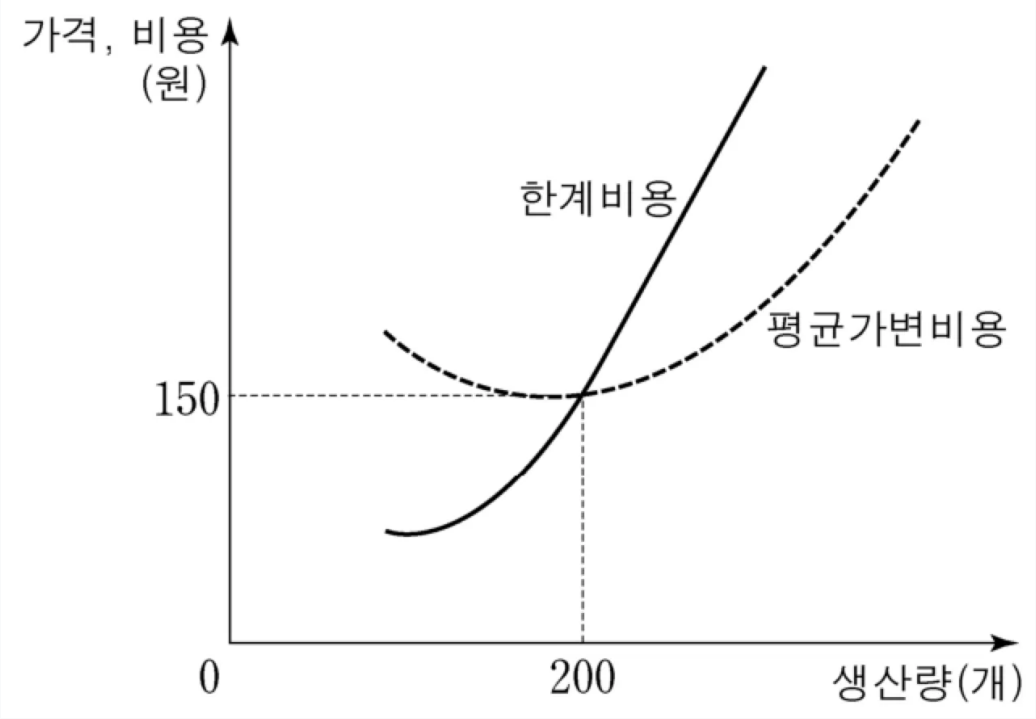
수요 또는 공급곡선이 이동하면 이동 전과 후에 각각 수요=공급을 풀어 P^*와 Q^*를 구한다. 그다음 공급곡선의 가격절편을 기준으로 생산자잉여 면적을 구하고, 변화분은 '이동 후−이동 전'으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원점을 지나는 직선 공급곡선에서는 $PS = \frac{1}{2}P^*Q^*$이다. 변화분은 새 생산자잉여에서 기존 생산자잉여를 뺀 값이다.

NoteBase

문 17. [그림]은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의 단기비용 곡선이다. 이 상품의 시장 가격이 170원일 때 이 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생산량은 200개이다.

②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③ 평균가변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

④ 균형점에서 한계비용은 170원이다.

⑤ 균형점에서 한계수입은 170원보다 크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완전경쟁시장에서 단기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P = MC$ 지점에서 정해진다는 원리를 묻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시장가격은 170원이다. 그림에서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은 생산량 200개, 150원이며 이 점에서는 $MC = AVC$ 이다. 가격 170원은 최저 평균가변비용 150원보다 높으므로 기업은 조업을 계속하고, 생산량은 한계비용 곡선이 170원과 만나는 200개보다 큰 수준에서 결정된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완전경쟁기업의 단기 이윤극대화 조건은 $P = MR = MC$이다. 완전경쟁기업은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한계수입은 가격과 같고, 가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높은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생산량을 선택한다.

계산 과정

1. 가격 170원은 최저 평균가변비용 150원보다 높으므로 조업중단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완전경쟁기업에서는 $MR = P = 170$원이다.
3. 따라서 우상향하는 한계비용 곡선에서 $MC = 170$원이 되는 점이 균형점이다. 이 점은 그림의 생산량 200개보다 오른쪽에 있다.

선지 판단

① X. 생산량 200개에서는 $MC = AVC = 150$원이다. 균형가격은 170원이므로 생산량은 200개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200개'는 '200개보다 많은 수준'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완전경쟁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시장가격 170원에서 수평이다. 틀린 표현인 '우하향한다'는 '수평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균형점은 평균가변비용의 최저점보다 오른쪽이므로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다. 틀린 표현인 '평균가변비용이 한계비용보다 크다'는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다'로 고쳐야 한다.
④ O. 완전경쟁기업의 균형점에서는 $P = MC$이고 가격이 170원이므로 한계비용은 170원이다.
⑤ X. 완전경쟁기업에서는 한계수입이 가격과 같으므로 균형점의 한계수입은 170원이다. 틀린 표현인 '170원보다 크다'는 '170원과 같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생산량 200개는 평균가변비용이 최소인 점일 뿐, 가격이 170원일 때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은 아니다. 또한 완전경쟁기업에서는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모두 가격선과 일치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완전경쟁 단기문제에서는 먼저 P와 최저 AVC를 비교해 조업 여부를 판단하고, 조업하면 가격선과 MC 곡선의 교점으로 생산량을 정한다. 그 교점에서 $P = MR = MC$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완전경쟁기업은 $P = MR = MC$, 조업 여부는 P와 AVC로 판단한다.

NoteBase

문 18. 근로자 1인당 임금이 월 100만 원이고 1인이 월 5개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 이 기업의 임대료는 월 220만 원이다. 이 기업이 제품을 월 20개 생산할 때 평균비용은?

① 5만 원

② 11만 원

③ 16만 원

④ 20만 원

⑤ 31만 원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는 평균비용을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근로자 1명의 월 임금은 100만 원이고, 1명은 월 5개를 생산한다. 월 임대료는 220만 원이며, 생산량은 20개이다.

사용할 공식

평균비용은 평균비용=총비용/생산량이다. 총비용은 노동비와 임대료를 합한 금액이므로 총비용=임금×근로자 수+임대료로 계산한다. 생산량 20개를 만들기 위한 근로자 수를 먼저 구해야 총노동비를 알 수 있다.

계산 과정

1. 필요한 근로자 수는 20÷5 = 4명이다.
2. 노동비는 100만 원×4=400만 원이다.
3. 총비용은 400만 원+220만 원=620만 원이다.
4. 평균비용은 620만 원÷20=31만 원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평균비용은 5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이다. 총비용 620만 원을 생산량 20개로 나누어야 한다.
② X: 평균비용은 11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이다. 임대료와 4명의 노동비를 모두 합산해야 한다.
③ X: 평균비용은 16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이다. 총비용은 320만 원이 아니라 노동비 400만 원과 임대료 220만 원을 합한 620만 원이다.
④ X: 평균비용은 20만 원이 아니라 31만 원이다. 20만 원은 총비용 400만 원만을 20개로 나눈 값으로, 임대료 220만 원이 빠져 있다.
⑤ O: 총비용 620만 원을 20개로 나누면 평균비용은 31만 원이다.
계산 결과 평균비용은 31만 원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오답 포인트

임대료 220만 원은 생산량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평균비용을 구할 때는 반드시 총비용에 포함한다. 또한 근로자 1명이 5개를 생산한다는 조건을 이용해 필요한 근로자 수를 4명으로 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평균비용 문제는 생산량에 필요한 투입량을 먼저 구하고, 변동비와 고정비를 더해 총비용을 만든 뒤 생산량으로 나누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평균비용은 총비용 ÷ 생산량이며, 임대료 같은 고정비도 총비용에 포함된다.

NoteBase

문 19. 경제적 선택에서 인간의 심리적, 감정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학이 생겨났으며, 이 경제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카너먼(Kahneman)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경제학이 제시한 이론은?

① 전망 이론
② 생애주기 이론
③ 효율적 시장 가설
④ 자연실업률 가설
⑤ 합리적 기대 가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카너먼의 행동경제학적 관점과 대표 이론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전망 이론은 사람이 항상 완전히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보지 않고, 기준점에 따른 이득·손실의 평가와 손실회피 성향을 고려한다.

핵심 정리

카너먼·트버스키: 전망 이론 — 사람은 이득과 손실을 기준점에 비추어 판단하며, 같은 크기라도 이득보다 손실을 더 크게 느끼는 손실회피 성향을 보인다.
모딜리아니: 생애주기 이론 — 소득이 높은 시기에는 저축하고 은퇴기에는 저축을 줄여 생애 전체의 소비를 조절한다고 본다.
파마: 효율적 시장 가설 — 자산가격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된다고 본다.
프리드먼·펠프스: 자연실업률 가설 —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물가상승률을 높여도 지속적으로 낮출 수 없는 자연실업률로 돌아간다고 본다.
뮤스·루카스 계열: 합리적 기대 가설 —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해 체계적인 예측오차를 줄인다고 본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망 이론은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제시한 이론으로, 경제적 선택에서 심리적 요인과 손실회피를 중시한다.
② X. 틀린 연결은 '카너먼-생애주기 이론'이다. 생애주기 이론은 소비와 저축을 생애에 걸쳐 배분하는 모딜리아니의 이론이다.
③ X. 틀린 연결은 '카너먼-효율적 시장 가설'이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가격이 정보를 반영한다는 파마의 이론이다.
④ X. 틀린 연결은 '카너먼-자연실업률 가설'이다. 자연실업률 가설은 장기 필립스곡선과 관련된 프리드먼·펠프스의 이론이다.
⑤ X. 틀린 연결은 '카너먼-합리적 기대 가설'이다. 합리적 기대 가설은 경제주체가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대를 형성한다는 뮤스·루카스 계열의 이론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③·④·⑤는 모두 거시경제학의 대표 가설이므로 익숙한 이론명만 보고 고르기 쉽다. 그러나 지문의 '심리적·감정적 요인'과 '카너먼'은 합리성의 한계를 다루는 전망 이론을 가리킨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학자와 이론을 연결하는 문제에서는 지문의 핵심 단서를 먼저 찾는다. 손실회피·기준점·심리적 편향이 나오면 카너먼의 전망 이론, 정보의 가격 반영이 나오면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카너먼 = 손실회피 = 전망 이론이다.

NoteBase

문 20. 다음은 A국의 2020년의 소비 지출(C), 투자 지출(I), 정부 지출(G), 순수출(X_n), 조세 납부액(T)이다. A국의 2020년의 균형국민소득과 투자 승수로 옳은 것은? (단, Y는 국민소득이고, 물가는 불변이다.)

- $C = 200 + 0.8(Y - T)$
- $I = 600$, $G = 100$, $X_n = 100$
- $T = 1{,}000$

① 균형국민소득: 800, 투자 승수: 2

② 균형국민소득: 800, 투자 승수: 5

③ 균형국민소득: 1,000, 투자 승수: 4

④ 균형국민소득: 1,000, 투자 승수: 5

⑤ 균형국민소득: 1,200, 투자 승수: 4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소비함수에서 총지출식을 만들고, 총지출과 국민소득이 같은 균형국민소득 및 투자승수를 구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소비는 $C = 200 + 0.8(Y - T)$이고, 조세는 $T = 1,000$이다. 투자 $I = 600$, 정부지출 $G = 100$, 순수출 $X_n = 100$이다. 물가가 불변이므로 단순 케인즈 모형의 재화시장 균형 $Y = C + I + G + X_n$을 적용한다.

사용할 공식

균형국민소득은 $Y = C + I + G + X_n$에서 구한다. 투자승수는 한계소비성향이 0.8이므로 $k_I = \frac{1}{1 - 0.8}$이다. 소비가 소득에 따라 0.8만큼 늘어나므로, 자율적 투자 증가가 연쇄 소비지출을 유발하는 정도를 이 공식으로 계산한다.

계산 과정

소비함수에 조세를 대입하면 $C = 200 + 0.8(Y - 1,000) = 0.8Y - 600$이다.
총지출은 $C + I + G + X_n = (0.8Y - 600) + 600 + 100 + 100 = 0.8Y + 200$이다.
균형에서 $Y = 0.8Y + 200$이므로 $0.2Y = 200$, 따라서 $Y = 1,000$이다.
투자승수는 $k_I = \frac{1}{1 - 0.8} = 5$이다.

NoteBase

선지 판단

① X: 균형국민소득이 800이고 투자승수가 2라는 판단은 틀리다. 계산 결과는 국민소득 1,000, 투자승수 5이다. 800은 균형식에서 소비의 자율부분과 투자·정부지출·순수출을 함께 정리하지 못해 생기는 오답이다.
② X: 균형국민소득 800은 틀리고, 투자승수 5만 맞다. 틀린 표현인 '균형국민소득 800'은 '균형국민소득 1,000'으로 고쳐야 한다.
③ X: 균형국민소득 1,000은 맞지만 투자승수 4는 틀리다. 틀린 표현인 '투자승수 4'는 $1/(1-0.8)=5$이므로 '투자승수 5'로 고쳐야 한다.
④ O: 균형국민소득은 1,000이고 투자승수는 5이므로 옳다.
⑤ X: 균형국민소득 1,200과 투자승수 4는 모두 틀리다. '균형국민소득 1,200'은 1,000으로, '투자승수 4'는 5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조세 1,000을 소비함수에 대입할 때 $0.8\times 1,000=800$을 빼야 한다. 또한 투자승수의 분모는 한계소비성향 자체가 아니라 1-한계소비성향이므로, 0.8을 넣어 4나 2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소비함수에 조세를 대입해 C를 Y의 식으로 정리한다. 다음으로 $Y=C+I+G+X_n$에 대입해 균형소득을 구하고, 한계소비성향 c로부터 투자승수 $1/(1-c)$를 별도로 계산한다.

암기 포인트

단순 케인즈 모형에서 투자승수는 $\frac{1}{1-c}$이고, 이 문항에서는 $c=0.8$이므로 5이다.

NoteBase

문 21. [표]는 우리나라 A기업의 전년 대비 대미(對美) 수출액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기업은 단일 재화만 수출하며, 원화 표시 가격은 불변이다.)

구분	t년	t+1년	t+2년
원화 표시 수출액(%)	0	10	0
달러화 표시 수출액(%)	10	10	−10

① 원/달러 환율은 t년보다 t+2년이 낮다.

② 수출량은 t-1년보다 t+2년이 10 % 적다.

③ 수출량은 t년보다 t+1년이 많다.

④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t년과 t+2년이 같다.

⑤ 원화 표시 수출액은 t년보다 t+2년이 작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전년 대비 원화·달러화 표시 수출액의 변동률과 원화 표시 가격 불변 조건을 이용하여 수출량과 원/달러 환율의 변화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원화 표시 가격이 일정하므로 원화 표시 수출액의 변동률은 수출량의 변동률과 같다.

자료 읽는 순서

1. 원화 표시 수출액의 기준을 t-1년 100으로 둔다.
2. 표에 따라 원화 표시 수출액은 t년 100, t+1년 110, t+2년 110이 된다. 따라서 수출량도 100, 110, 110으로 변한다.
3.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t년 110, t+1년 121, t+2년 108.9가 된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 표시 수출액을 달러화 표시 수출액으로 나눈 값에 비례한다.

핵심 근거

t년의 원화·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각각 100, 110이고, t+2년의 값은 각각 110, 108.9이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t년보다 t+2년에 높다. 한편 원화 표시 가격이 불변이므로 t+1년 수출량은 t년보다 10% 많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표의 t년과 t+2년을 비교하면 원화 표시 수출액은 100에서 110으로,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110에서 108.9로 변한다. 원/달러 환율은 원화 표시액÷달러화 표시액에 비례하므로 t+2년이 t년보다 높다. 틀린 표현인 '낮다' → '높다'가 옳다.

② X: 원화 표시 가격이 불변이므로 원화 표시 수출액 100, 110, 110은 각각 수출량 100, 110, 110에 대응한다. t-1년 대비 t+2년 수출량은 10% 많다. 틀린 표현인 '10% 적다' → '10% 많다'가 옳다.

③ O: 표의 원화 표시 수출액이 t년 100에서 t+1년 110으로 10% 증가한다. 원화 표시 가격이 불변이므로 수출량도 t+1년이 t년보다 많다.

④ X: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t년 110에서 t+1년 121이 된 뒤 t+2년에 10% 감소하여 108.9가 된다. 따라서 t년과 t+2년의 달러화 표시 수출액은 같지 않다. 틀린 표현인 '같다' → 't+2년이 t년보다 적다'가 옳다.

⑤ X: 원화 표시 수출액은 t+1년에 10% 증가한 뒤 t+2년에 0% 변동하므로 t+2년에도 110이다. t년의 100보다 크다. 틀린 표현인 '작다' → '크다'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②와 ⑤는 '전년 대비 변동률'을 각 연도의 절대 비교로 바로 읽는 함정이 있다. t+2년의 0%는 t+1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뜻이며, t년 또는 t-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준연도의 수출액을 100으로 놓고 변동률을 해마다 누적한다. 그다음 원화 표시 가격이 고정이면 원화 표시 수출액의 증감률을 수출량의 증감률로 읽고, 환율은 동일한 수출의 원화 표시액과 달러화 표시액의 비율로 비교한다.

암기 포인트

가격 불변이면 원화 수출액 증감률 = 수출량 증감률, 0% 변동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NoteBase

문 22.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X재와 Y재는 모두 수요와 공급 법칙을 따르며, X재와 Y재는 연관재 관계이다.
• 2020년 10월에 X재와 Y재의 균형 가격은 각각 P_1, P_3였다.
• 2020년 11월에 X재의 공급이 변동하여 X재와 Y재의 균형 가격이 각각 P_2, P_4가 되었으며, X재와 Y재의 거래량은 모두 증가하였다.

① X재와 Y재는 대체재 관계이다.
② P_1은 P_2보다 높다.
③ P_4는 P_3보다 낮다.
④ 2020년 10월 대비 11월의 X재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
⑤ 2020년 10월 대비 11월의 Y재 판매 수입은 감소하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X재 공급의 변동이 X재의 균형과 연관재 Y재의 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연결해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공급 증가는 해당 재화의 균형가격을 낮추고 균형거래량을 늘린다. X재의 가격 하락 뒤 Y재 거래량도 증가했으므로, 두 재화는 함께 소비되는 보완재 관계이다. 보완재는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X재 가격 하락으로 Y재의 거래량이 증가했으므로 두 재화는 보완재이다. '대체재 관계'라는 표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X재와 Y재는 보완재 관계이다.'이다.
② O — X재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X재 공급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공급 증가이면 균형가격은 하락하므로 $P_1 > P_2$이다.
③ X — X재 공급 증가로 X재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재인 Y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따라서 Y재의 균형가격은 상승하여 $P_4 > P_3$이다. 'P_4는 P_3보다 낮다'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P_4는 P_3보다 높다.'이다.
④ X — X재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였다. 판매 수입은 가격과 거래량의 곱이므로, 두 변화의 크기를 알 수 없어 증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X재 판매 수입의 증감은 알 수 없다.'이다.
⑤ X — Y재는 수요 증가로 균형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증가하였다. 따라서 판매 수입은 증가한다. '감소하였다'가 틀렸고, 올바르게는 'Y재 판매 수입은 증가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X재의 거래량 증가만 보고 X재 수요 증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자료에서는 X재의 공급 변동이 원인이며, 공급 증가로 X재 가격이 하락한 뒤 Y재 거래량이 증가한 사실이 보완재 여부를 가른다. 또한 ④처럼 가격과 거래량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판매 수입은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원인이 된 재화에서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확인한다. 공급 증가이면 가격 하락·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이면 가격 상승·거래량 감소이다. 다음으로 그 가격 변화 뒤 연관재 거래량이 증가하면 보완재, 감소하면 대체재로 판단한다. 판매 수입은 가격과 거래량이 모두 같은 방향일 때만 증감이 확정된다.

암기 포인트

공급 증가: 가격↓·거래량↑ / 보완재 가격↓: 상대 재화 수요↑ / 가격↓·거래량↑이면 판매 수입은 미정이다.

NoteBase

문 23. [표]는 A국과 B국의 2020년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를 나타낸 것이다. A국과 B국의 2020년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국과 B국은 상호 간에만 교역을 한다.)

구분	A국	B국
수출 의존도(%)	40	15
수입 의존도(%)	30	20

<보기>

ㄱ. GDP는 B국이 A국의 2배이다.

ㄴ.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A국이 B국보다 많다.

ㄷ. A국의 순수출액은 양(+)의 값으로 GDP의 10%이다.

ㄹ. B국의 민간 소비 지출, 민간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의 합은 GDP의 95%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양국이 서로 간에만 교역한다는 조건을 이용하여 수출액과 수입액을 대응시키고, 순수출을 GDP 지출항등식에 대입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A국의 GDP를 Y_A, B국의 GDP를 Y_B라고 둔다.

A국 수출액은 $0.40Y_A$, 수입액은 $0.30Y_A$이다.

B국 수출액은 $0.15Y_B$, 수입액은 $0.20Y_B$이다.

두 나라만 교역하므로 A국의 수출액은 B국의 수입액과 같고, A국의 수입액은 B국의 수출액과 같다.

NoteBase

사용할 공식

양국 간 교역액은 $X_A = M_B$, $M_A = X_B$이다. 순수출은 $NX = X - M$이고, GDP 지출항등식은 $Y = C + I + G + NX$이다.
서로 간에만 교역한다는 조건 때문에 한 나라의 수출이 상대국의 수입과 정확히 대응하므로 이 관계식을 사용한다.

계산 과정

1. $X_A = M_B$이므로 $0.40Y_A = 0.20Y_B$이다. 따라서 $Y_B = 2Y_A$이므로 ㄱ은 옳다.
2. $X_A = 0.40Y_A$, $X_B = 0.15Y_B = 0.30Y_A$이므로 수출액은 A국이 더 많다. 수입액은 $M_A = 0.30Y_A$, $M_B = 0.20Y_B = 0.40Y_A$이므로 A국이 더 적다.
3. A국의 순수출은 $NX_A = 0.40Y_A - 0.30Y_A = 0.10Y_A$이므로 GDP의 10%인 양(+)의 값이다. 따라서 ㄷ은 옳다.
4. B국의 순수출은 $NX_B = 0.15Y_B - 0.20Y_B = -0.05Y_B$이다. 따라서 $C_B + I_B + G_B = Y_B - NX_B = 1.05Y_B$이므로 민간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의 합은 GDP의 105%이다. ㄹ의 95%는 틀리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의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A국이 B국보다 많다' 중 수입액 부분이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수출액은 A국이 더 많고, 수입액은 A국이 B국보다 적다.
② O: ㄱ과 ㄷ이 모두 옳다. $Y_B = 2Y_A$이고, A국의 순수출은 $0.10Y_A$이다.
③ X: ㄷ은 옳지만 ㄴ은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수입액 비교를 잘못한 표현이며, 올바르게는 $M_A = 0.30Y_A$, $M_B = 0.40Y_A$이다.
④ X: ㄴ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ㄴ의 수입액은 A국이 더 적고, ㄹ의 'GDP의 95%'는 틀린 표현이다. 올바르게는 B국의 $C + I + G$ 합은 GDP의 105%이다.
⑤ X: ㄷ은 옳지만 ㄹ은 틀리므로 조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ㄹ의 95%를 105%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수출 의존도와 수입 의존도는 각각 GDP 대비 비율이므로, 40%와 15%, 30%와 20%를 직접 비교해서 교역액의 크기를 판단하면 안 된다. 먼저 $Y_B = 2Y_A$를 구한 뒤 각 비율에 GDP를 곱해야 한다. 또한 B국은 순수출이 -5%이므로 $C + I + G$의 합은 95%가 아니라 105%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두 나라만 교역하면 먼저 한 나라의 수출액과 상대국의 수입액을 같게 놓아 GDP 비율을 구한다. 그다음 각 의존도에 해당 GDP를 곱해 교역액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Y = C + I + G + NX$에서 순수출의 부호를 반대로 이항하여 국내지출 합을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양국만 교역: 한 나라 수출 = 상대국 수입. 순수출이 음(-)이면 $C + I + G$는 GDP보다 크다.

NoteBase

문 24. [표]는 A국의 2020년 9월과 10월의 경상 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위 : 억 달러)

구분	9월	10월
경상 수지	−12	39
상품 수지	50	46
서비스 수지	−14	−11
본원 소득 수지	−43	12
이전 소득 수지	−5	−8

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포함되는 항목의 적자액은 10월이 9월보다 적다.

② 채권 거래 금액이 포함되는 항목은 9월과 달리 10월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③ 해외 무상 원조 금액이 포함되는 항목은 9월과 10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다.

④ 재화의 수출액은 9월이 10월보다 많고, 재화의 수입액은 10월이 9월보다 많다.

⑤ 9월과 달리 10월의 경상 수지는 달러화 대비 A국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경상 수지의 세부 항목별 분류와 9월·10월 수지의 증감 관계를 표에서 읽는 문제이다.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해외 무상 원조는 이전 소득 수지에 포함된다.

자료 읽는 순서

1. 단위가 억 달러이고, 음수는 적자, 양수는 흑자임을 확인한다.
2. 항목별로 9월과 10월의 수지 금액을 비교한다.
3. 수지의 차이만으로 수출액·수입액 같은 개별 거래액까지 알 수 있는지를 구분한다.

NoteBase

핵심 근거

서비스 수지는 9월 -14억 달러, 10월 -11억 달러이므로 적자액은 10월에 3억 달러 줄었다. 이전 소득 수지는 9월 -5억 달러, 10월 -8억 달러로 두 달 모두 적자이다. 재화 수지는 9월 50억 달러, 10월 46억 달러이나, 이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일 뿐 각각의 금액은 제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에 포함된다. 서비스 수지의 적자액은 9월 14억 달러에서 10월 11억 달러로 줄었으므로 옳다.

② X. 채권의 매매·거래 금액은 금융계정에 포함되며, 이 표의 경상 수지 항목이 아니다. '10월에 적자를 기록하였다'는 표현은 표로 판단할 수 없다. 틀린 표현 → 채권 거래가 포함되는 금융계정은 이 표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10월의 적자 여부를 알 수 없다.

③ X. 해외 무상 원조는 이전 소득 수지에 포함된다. 이전 소득 수지는 9월 -5억 달러, 10월 -8억 달러이므로 두 달 모두 적자이다. 틀린 표현 → '9월과 10월 모두 흑자'가 아니라 '9월과 10월 모두 적자'이다.

④ X. 재화 수지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값이다. 표에서는 재화 수지 흑자가 9월 50억 달러, 10월 46억 달러라는 사실만 알 수 있어 개별 수출액과 수입액의 크고 작음은 알 수 없다. 틀린 표현 → '9월 수출액이 더 많고 10월 수입액이 더 많다'가 아니라 '재화 수지 흑자는 9월이 10월보다 4억 달러 크다'이다.

⑤ X. 10월 경상 수지는 39억 달러 흑자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경상수지 흑자는 외환시장에서 A국 통화에 대한 수요를 늘려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틀린 표현 → '통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오답 포인트

④처럼 수지의 흑자·적자와 수출액·수입액 자체를 혼동하기 쉽다. 재화 수지의 차이가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출이 줄었는지, 수입이 늘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또한 ③의 이전 소득 수지에서 음수 부호를 놓치면 흑자로 잘못 판단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거래의 성격을 경상 수지의 세부 항목에 분류한 뒤, 해당 행의 부호와 두 시점의 수치를 비교한다. 수지는 두 거래액의 차이이므로, 수지만 제시된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의 개별 금액까지 추론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서비스 수지, 무상 원조는 이전 소득 수지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통화가치 상승 요인이다.

NoteBase

문 25. 과점시장 내 개별 기업이 상대방의 현재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경쟁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는?

① 쿠르노(Cournot) 경쟁
② 베르뜨랑(Bertrand) 경쟁
③ 카르텔(Cartel)의 모형
④ 슈타켈버그(Stackelberg) 모형
⑤ 굴절 수요 곡선 모형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전략변수로 삼고 상대 기업의 선택을 어떻게 가정하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쿠르노 경쟁은 각 기업이 상대방의 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을 동시에 선택하는 모형이다. 결정 차이축은 산출량 경쟁이며, 키워드는 '상대 산출량 고정'이다.
베르트랑 경쟁은 상대방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가격을 경쟁적으로 선택하는 모형이다. 결정 차이축은 가격 경쟁이다.
슈타켈버그 모형은 선도기업이 먼저 산출량을 정하고 추종기업이 이를 보고 뒤따라 정하는 순차적 산출량 경쟁이다.
카르텔은 독립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쟁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동이윤을 높이도록 협조하는 방식이다.
굴절수요곡선 모형은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과점모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상대방의 현재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은 쿠르노 경쟁의 정의와 일치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생산량을 선택'이다. 베르트랑 경쟁에서는 상대방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격을 선택한다.
③ X: 틀린 표현은 '개별 기업이 상대방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카르텔에서는 기업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공동이윤 극대화를 위해 가격·산출량 등을 협의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모든 기업이 상대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슈타켈버그 모형은 선도기업이 먼저 산출량을 정하고, 추종기업이 그 산출량을 관찰한 뒤 반응하는 순차 게임이다.
⑤ X: 틀린 표현은 '상대방의 생산량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생산량을 선택'한다는 설명이다. 굴절수요곡선 모형은 경쟁사의 가격 대응이 비대칭적이라는 가정으로 가격의 경직성을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쿠르노와 슈타켈버그는 모두 산출량을 다루므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쿠르노는 각 기업이 상대 산출량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동시에 결정하는 반면, 슈타켈버그는 선도·추종의 순서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경쟁변수가 산출량인지 가격인지 구분한다. 산출량 경쟁이면 '동시에 상대 산출량을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는 쿠르노, '먼저 정하는 선도기업과 뒤따르는 추종기업'이 있으면 슈타켈버그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쿠르노는 수량 동시경쟁, 베르트랑은 가격경쟁, 슈타켈버그는 수량 순차경쟁이다.

NoteBase